갈길 바쁜 4위 KIA '제자리 걸음'

주말 현대전 1승1패…5위 두산과 1.5게임차

"선발이요? 그냥 첫 번째 투수로 부르시죠"

서정환 KIA 감독이 24일 현대전을 앞두고 선발 마운드 운용의 답답함을 털어놨다.

서 감독은 "그레이싱어를 빼면 믿을만한 선발 투수가 없다. (김)진우도 툭 하면 아프고, 강철민은 부상으로 시즌을 접었다"면서 "(전)병두가 좀 해주길 기대했는데, 요즘 투구 감각을 완전히 잃어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 감독은 "올 시즌 이동현과 이상화 등이 예상외로 잘 해주고 있으나, 이들이 나오면 결국 중간 계투진으로 승부를 걸 수 밖에 없다"며 "그레이를 빼면 선발보다는 첫 번째 투수로 부르는 게 적절한 표현일 것"이라며 선발 마운드를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두산과 막판까지 4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서 감독으로선 시즌내내 괴롭혀온 선발 마운드의 공백이 아쉬울 뿐이다.

하지만 서 감독을 더욱 한숨짓게 만드는 것은 현 선발 마운드로선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더라도 승리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KIA는 24일 광주 현대전서 선발 장문석이 1.1이닝 4안타(1홈런), 1볼넷, 5실점으로 경기 초반 무너지는 바람에 박정태, 이동현, 전병두, 차정민, 조태수 등 물량 공세로 나섰으나, 결국 1-13으로 대패했다.

KIA는 0-6로 뒤진 5회 2사 1,2루서 김원섭의 중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KIA는 전날 광주 현대전서도 선발 이상화가 1.2이닝동안 3피안타로 흔들렸고, 신용운, 한기주-윤석민 등 '특급 계투조'를 투입한 끝에 4-0으로 진땀승을 거뒀다.

KIA는 이로써 5위 두산과 1.5게임차, 4위를 유지하며 남은 6경기에서 매직넘버(magic number) '5'를 남겨두게 됐다.

두산이 나머지 7경기(58승 58패 3무)를 모두 승리한다고 가정할 경우 KIA는 최소 5승 1패(60승 57패 3무)를 거둬야만 동률을 이루고, 상대 전적(11승 6패 1무)서 앞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두산은 잠실서 LG를 5-2로 꺾고 4강 진출의 불씨를 살려냈고, 3위 한화는 사직서 롯데에 8-1로 승리했다.

1위 삼성은 인천 SK전서 1-2로 패해 2위 현대와 1게임차로, 선두 자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4일 광주경기

현대	0 5 0	1 0 0	3 1 3	13
KIA	0 0 0	0 1 0	0 0 0	1

▲승리투수=캘러웨이(13승7패)
▲패전투수=장문석(1승3패15세이브)
▲홈런=송지만 14호(2회·3점·현대)

24일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딩과 맨유의 경기에서 레딩의 설기현이(왼쪽)이 맨유의 수비수 가브리엘 에인세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AP=연합뉴스

24일 텍사스에서 열린 미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와 클리블랜드의 경기에서 추신수가 3회 비센트 파딜라의 공을 때려 내고 있다. /AP=연합뉴스

추신수 1안타 2득점

메이저리거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타점을 보태고 도루도 성공하는 등 모처럼 활약했다.

추신수는 24일 텍사스주 알링턴 아메리퀘스트 필드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와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앞선 3회 2사 3루에서 상대 선발투수 빈센테 파디야에게 좌전안타를 빼앗아 타점(시즌 18타점)을 올렸다.

이날 성적표는 4타수 1안타 1타점 2득점 1도루. 시즌 타율은 0.271에서 0.270으로 조금 떨어졌다. 클리블랜드는 텍사스에 6-3으로 이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본즈 734호 홈런

행크 아론 NL기록 돌파

배리 본즈(42·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통산 홈런왕 행크 아론의 내셔널리그 기록을 깼다.

본즈는 24일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밀워키 브루어스와 원정경기에서 3회 상대 선발투수 크리스 카푸아노에게서 우중간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때렸다. 본즈는 1986년부터 내셔널리그에서만 홈런 734개를 쌓아 1954년부터 1974년까지 아론이 세운 내셔널리그 기록(733개)을 갈아치웠다. 본즈는 또한 아론의 통산 홈런기록(755홈런)에도 21개까지 다가섰다.

한기주 '8월 MVP'

KIA타이거즈 한기주(19)가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21(원장 주종대·왼쪽)'이 후원하고 광주지역 야구기자단이 선정하는 8월 월간 MVP로 뽑혔다.

한기주는 8월 한 달간 3승 1패 1세이브 1홀드 방어율 3.24를 기록하며 8월 팀 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한기주는 시상금 100만원 중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50만원을 기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중계

25일(월)

▲메이저리그〈세인트루이스-휴스턴〉(08 : 55·Xports)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김천대회 준결승(12 : 00·KBS SKY Sports)

▲한솔코리아오픈 테니스(14 : 00·KBS SKY Sports)

▲코보컵 배구선수권(14 : 40·KBS1)

▲한·일 프로농구 챔피언전〈오사카 에베사-서울 삼성〉(18 : 00·SBS스포츠)

설기현 종횡무진 누빈 레딩 박지성 빠진 맨유와 무승부

'지치지 않는 활동력' 평점 7

설기현(27·레딩 FC)이 맹활약을 펼치며 '거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무승부를 이끌어내는데 힘을 보탰다.

설기현은 24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레딩 마데스키 경기장에서 열린 2006-200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맨유와 홈 경기에서 오른쪽 날개로 나와 후반 40분 스티븐 헌트와 교체될 때까지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볐다.

창단 135년만에 처음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레딩은 후반 3분 케빈 도일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뽑아 맨유를 잡을 뻔 했지만 후반 28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동점골을 내줘 1-1로 비겼다.

레딩은 3승1무2패(승점 10)를 기록했고 맨유는 4승1무1패(승점 13)가 됐다.

설기현으로서는 박지성(25·맨유)의 부상으로 태극전사 맞대결은 불발했지만 명문 맨유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 존재를 알릴 수 있는 한 판이었다.

전반 2분 맨유의 웨인 루니가 위협적인 중거리슛을 때릴 때만해도 맨유의 일방적인 공격이 점쳐졌다. 그러나 레딩도 만만찮았다.

르로이 리타가 전반 16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문전으로 크로스를 찔렀고 설기현의 발이 한 발짝 모자라 살짝 빗나갔다. 이어 2분 뒤 도일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맨유 골키퍼 에드윈 반 데르사르의 선방에 막혔다.

레딩은 후반 3분 선제골을 뽑아냈다. 맨유의 게리 네빌이 핸드링 파울을 범해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키커로 나선 도일은 반 데르사르에게 방향을 읽혔지만 손끝을 스치는 정확한 슛으로 네트를 갈랐다.

맨유는 후반 28분 호날두가 미드필드 왼쪽에서 수비수 한 명을 접고 들어가며 대각선 땅볼 강슛을 때려 동점골을 뽑아냈다.

한편 설기현은 영국 축구전문 스포츠채널 스카이스포츠(www.skysports.com)로부터 "지치지 않는 활동력"이라는 평가와 함께 평점 7점을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홍만 랭킹 5위

WBC 무에타이 부문

'테크노골리앗' 최홍만이 세계복싱평의회(WBC) 무에타이 부문 랭킹 5위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WBC 무에타이 공식 홈페이지(www.wbcmuaythai.com)에 따르면 최홍만은 WBC가 최근 발표한 8월 무에타이 104.5kg이상 슈퍼헤비급 전체 순위 14위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랭킹 1위에는 입식타격 대회인 K-1에서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는 피터 아츠가 꼽혔고 K-1에서 활약중인 어네스트 호스트(이상 네덜란드)는 9위, 노부 하야시(일본)는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챔피언은 공석으로 돼 있다.

최홍만은 지난 6월 K-1 챔피언 세미 쉴트(네덜란드)를 판정승으로 꺾은 데 이어 최근 아케보노(일본) 마저 가볍게 제압, 통산 9승(3KO.2TKO)1패의 전적을 자랑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에타이 경기는 치른 적이 없다.